

평온 요양원

뉴저지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주정부 평가 최고
Five Star 인증

한인 분들을 더욱 정성껏 모십니다

문의 및 상담
최진희 908-380-0619
622 South Laurel Ave. Hazlet NJ 07730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 Eye Exams
- Eye Glasses
- Contact Lenses
- Eye Disease Treatment
- Refractive Surgery Consultant

1734 Lincoln Hwy.(RT.27)
Edison, NJ 08817
Tel. 732 / 393-1210
Fax 732 / 393-1140
www.DrDouglasLee.com

KIMS BIKE SHOP
732-846-3880
111 French St. New Brunswick NJ 08901

KWIK
킵 모기지
주/택/융/자/전/문

다양한 융자 상품, 전화 상담 환영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park@kwikm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Century 21
SYLVIA GEIST AGENCY

Clara Torres
Sales Associate
NJAR Distinguished Sales Award
Cell. 908-330-8134
372 Highway 18, East Brunswick NJ 08816

프/린/스/탄/의/명/소
CHUCK'S
SPRING STREET CAFE

Buffalo Wings, Burgers & Dogs, BBQ Ribs & Combos
EAT IN / TAKE OUT
609-921-0027
ChucksSpringStreetCafe.com
Delivery via Doordash or Grubhub 16 Spring St. Princeton NJ 08542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Licensed in NJ & NY
advisorustrust@gmail.com

UnitedHealthcare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귀하가 선택하실 수 있는
메디케어 혜택들을 알아보십시오.

JOHN L. SMITH
MEDICARE HEALTH INSURANCE
1-877-718-3682 (TTY 71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물거름 약국, 전문 약국
LG 약국
Christine Eo | Pharm D. 약학박사
LG Pharmacy
Tel. 732-354-3777
Fax. 732-354-4909 기록 ID : 888LG
244 Plainfield Ave, Edison, NJ 08817

감자탕, 순대, 도시락전문
732-248-1775

덕수궁
475 Old Post Rd. Edison.

B&B
Auto Repair

Complete Auto Repair & Body Work
Lic. #2206A
NJ State Inspection

Seo Y. Park
175 Woodbridge Ave.
(Rt. 514)
Highland Park, NJ 08904
Tel (732) 985-9500
Fax (732) 985-7637

인병원
교통사고,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의학
T. 732-287-1990

Su-Ra Catering
(구) 수랏상

새로 이전한 수라 케이터링에서
더 깊어진 풍미를 느껴 보세요
732-287-6719
1609 Lincoln Hwy, Edison, NJ 08817

김치하나
KOREAN-JAPANESE RESTAURANT
T 908.755.0777

김상우 한의원
Sang Woo Kim Acupuncture & Herbs

디스크/요통/손목/무릎/오십견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알러지, 중풍 크리닉
732-248-1980 | 1939 RT.27 Edison NJ 08817

Central Funeral Home
중앙 장의사

Manager: Gina Chong, NJ Lic #4904
201-945-2009
809 Broad Avenue
Ridgefield, NJ 07657

SANSONE
AUTOMALL
90-100 RT.1 Avenel NJ 07001
201.852.3232
Manny Kim

HYUNDAI
TOYOTA KIA HONDA MAZDA Jeep CHRYSLER

모든 차종,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연중
제 28 주일

2020년
10월 11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9 : 00 AM
(한국어) - 11 : 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마태오 22,1-14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려오너라.>

<이번주 전례 안내>

제1독서 이사야서 25,6-10
화답송 시편 23(22),1-3,7,3,4-4.5.6 (© 6ㄷㄹ)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4,12-14.19-20
복음환호송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복음 마태오 22,1-14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려오너라.>

후렴: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주간 말씀 전례	제 1독서 / 제 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10/12/20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4,22-24.26-27.31-5,1	루카 11,29-32
화요일 10/13/20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5,1-6	루카 11,37-41
수요일 10/14/20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5,18-25	루카 11,42-46
목요일 10/15/20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1,1-10	루카 11,47-54
금요일 10/16/20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1,11-14	루카 12,1-7
토요일 10/17/20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1,15-23	루카 12,8-12
일요일 10/18/20	이사야서 2,1-5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0,9-18	마태오 28,16-20

미사지향

연미사 (봉헌자)

- 최규학 (프란치스코), 최혜경(데레사) - 가족
- 정영옥 (수산나) - 가족
- 장인석 (미카엘) - 가족
- 이화자 (마틸다) - 가족
- 김명자 (헬레나) - 가족
- 김교식 (야고보) - 가족
- 한정숙 (레지나) - 가족
- 황명호(요한) - 황분숙(비비안나)

생미사 (봉헌자)

- 전선희(다니엘라), 전선임(아네스)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오용덕(헨리코) - 서경호(대건안드레아)
- 노은정(클라라), 이성현(필립보네리) 가정
- 한지혜(크리스티나)
- 김명규, 안현정(소화데레사) 가족 - 유용희(울리아나)
- 고명진(다리아나), 고병준(요한), 김소울(울리아나), 김윤제(그레고리오)의 첫 영성체 축하
- 주일학교 자모회

교무금 납부 안내

오용운(9-12)	이창우(10)	우영인(9-10)
최영찬(9-10)	임문수(10)	박락준(10)
허종(10)		
합계: \$1,250		

감사 헌금 납부 안내

안현정(\$200)	합계: \$200
------------	-----------

주일 헌금 납부 안내

미사참여 88명	야외영성체 27명	합계: \$1,183
•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 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미사봉헌(생미사/연미사) 예물 - Payable to OLM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정영철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김진철 요한, 오용덕 헨리코, 이석중 스테파노, 김삼식 베드로, 오욱순 수산나, 김경희 수산나, 백영숙 헬레나, 오홍순 카타리나, 유희자 베로니카, 김금자 유리안나

공지 사항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하여 모든 회의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단체장을 통해 전달해드립니다.

미사 지향 (생미사/연미사) 신청 변경 안내
 - 교구청 지침에 의거하여 8월부터 장기간 미사 지향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장기간 미사 지향을 원하시는 분들은 번거롭더라도 매 주 1회씩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예물은 미사 한 대에 \$10 입니다.
 - 문의 : 사무장 (732-258-5998)

은혼식, 금혼식 축하 메세지 신청
 - 코비드로 인해 올해 은혼식/금혼식 축하 예식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체키오주교님의 결혼 25주년/50주년 축하메세지를 메일로 받고 싶으신 신자분들은 10월 15일까지 교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https://www.diometuchen.org/silver-and-gold-anniversary-cele->

10월 목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미사 30분 전 목주기도를 바칩니다.
 - 10/11 빛의 신비 (자비의 모후 Pr.)
 - 10/18 고통의 신비 (영원한 도움의 성모 Pr.)
 - 10/25 영광의 신비 (사랑하올 어머니 Pr.)

첫 영성체
 - 고명진(다리아나), 고병준(요한), 김소울(울리아나), 김윤제(그레고리오) 네 명의 학생이 오늘 미사 중 첫 영성체를 받습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보 신자 참여 원고 모집
 - 신자분들의 일상생활이나 신앙체험, 묵상글, 신앙생활 관련 궁금증 및 사진과 사연등을 모집합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당 교무금 및 헌금 납부 방법

1. **우편으로 납부**
 분실위험으로 인해 체크만 가능하며,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교무금, 주일헌금, 특별헌금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Payable to OLM)

2. **현금으로 납부**
 1) 사제관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우편함에 넣어주시거나,
 2) 구역장님이나 대리인이 수거하여 사제관 우체통에 넣어주실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미리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3) 봉투에는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위에서 설명드린 납부 목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Venmo**
 친구찾기로 "SBB-LEE"찾으시고, 프로필에 성당 사진과 Namwoong Lee 이름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는 세대주 성함과 헌금 종류를 구분해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사무장(732-258-5998)

4. **야외 영성체**
 주일 오전 10시 15분~ 10시 45분까지 있는 야외 영성체에 오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교무금 및 헌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신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태오 22,1-14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1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풀어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칫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와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라스도님 찬미합니다.

신 앙 칼 럼

<영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주는 목주기도>

성 요한 23세 교황은 어느 곳에 머무르든 일과를 목주기도로 시작해 목주기도로 끝낼 만큼 목주기도에 빠져 지냈다. 때론 그 시간에 함께 있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바치기도 했다. 요한 23세 교황은 평소 새벽 4시면 일어나 오전 8시까지 성당 안에 머무르며 기도와 묵상, 영적독서를 하고 미사를 봉헌했다. 점심 식사를 마치면 비서신부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목주기도를 바쳤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성체 조배를 하고 마지막 목주기도를 바쳤다.

그는 “목주기도로 묵상과 영신수련을 동시에 수행한다”면서 “목주기도의 수련은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로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 정신을 깨어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생전에 신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난 알현 자리에서는 “최소한 하루 한 번이라도 목주기도를 바치는 데 시간을 내십시오. 목주기도로 위안과 강인함, 충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요한 23세 교황은 목주기도를 하면 할수록 현실적인 관심사에 더욱 몰두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목주기도를 바치는 영혼은 결코 자신만을 떼어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도할수록 더 강하고 더 착한 마음을 지니게 되고 사회적 소속감과 책임감을 지니게 되고 사회의 불안과 위험에 관심을 두게 된다”고 전했다. 그리하여 “목주기도는 공격적이고 공동기도, 위대한 기도로 승격된다”는 말이었다.

출처: 성솔기, “성인들의 목주기도”, 가톨릭 신문 제 3065호, 10면

복음 묵상 나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눕니다.

질문 1. 내가 대답은 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질문 2.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일지 나눠봅시다.



요한 23세 교황